

[제53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최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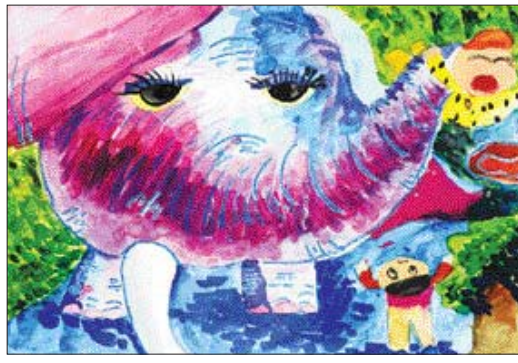
미술 최고상 수상작



축구경기 초등부 1·2년 김재현 <일곡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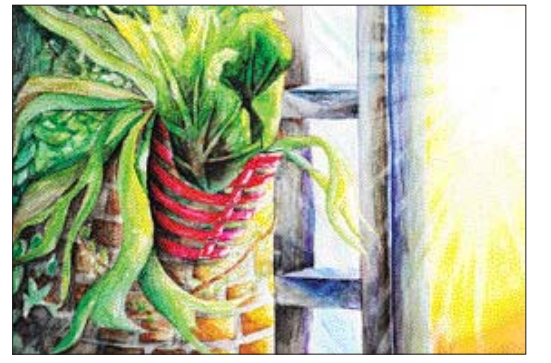
사자의 뽕내기 초등부 3·4년 김민정 <운암초 4>



뽕대나는 코끼리 초등부 5·6년 신재민 <중앙초 5>



봄 중등부 정소리 <전남중 3>



5월의 햇살 고등부 이은주 <전남여고 3>

미술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고등부	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김재현 <일곡초 2>	김민정 <운암초 4>	신재민 <중앙초 5>	정소리 <전남중 3>	이은주 <전남여고 3>	이주희 <동아여중 3>	신미희 <보문고 3>	김민영 <유안초 4>	한유나 <대광여고 2>	양진산 <효덕초 4>	조희준 <송원초 6>	박수현 <동신여중 1>

성악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중등부	중등부	중등부	고등부
박한빈 <미산초 1>	양세미 <문산초 4>	오윤지 <살레시오초 6>	임승준 <여수여인고3>	나유빈 <문산중 2>	김솔 <살레시오초 6>	김일빈 <송원초 6>	윤난솔 <장성여중 3>	서은미 <금당중 2>	김혜수 <동명중 3>	이기영 <광주여고 3>	

시 최고상 수상작

초등부

꽃

김민영 <유안초 4>

우리 집은 꽃집이다.
함박 웃는 아빠는
함박꽃
시간을 잘 지키는 엄마는
시계 꽃
날 괴롭히는 누나는
가시가 많은 선인장
큰누나는 시끄럽게 구니
딸랑딸랑 방울꽃
나는 막내니까
작고 귀여운 채송화
예쁜 꽃이 활짝 핀
화목한 우리 집

고등부

탑

한유나 <대광여고 2>

몇 십년동안
산중턱에 자리잡고 계시는
나의 스승이 계셨다.
등산객들은 그를
그저 '돌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기다림을 수용할 줄 아는 인내와
수많은 소원에 귀를 기울이는 배려
그리고 석간(石間)에
자리나는 이끼와 작은생명체까지
품어주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그의 가르침으로
하나의 주석(柱石)을 얻었고
푸른 잎에 둘러싸인
그와 같은 존재가 되려한다.

산문 최고상 수상작

중등부

신문

이주희 <동아여중 3>

“동아여중 신문 편집부입니다! 신문 받아주세요!”
작년 겨울, 유난히 길고 추웠던 졸업식날, 강당 현관 앞에서 우리는 추위에 떨던 땀겨울 학부모님들에게 신문을 배부하고 있었다. 얼마 후, 운동장에서 한없이 짓밟혀 무색히 흩날리고 있는 신문을 보면서, 마치 그것들이 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구겨져 아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1년 동안 꾸준히 기사를 쓰고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서 했던 모든 노력, 그것들로 이뤄낸 결과들이 차츰히 희석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다.
지난 1년 동안 작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진·취재를 도맡아하고, 그것에 대해 기사를 쓰고, 편집과 발행, 그리고 배부까지, 신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하는 신문편집부의 숨은 노력들이 아무에게나 깃발혀간다는 것이다. 사실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내가 만든 신문이 아니기에, 기사들을 대충 훑어보고 버려버리곤 했다. 지난날을 반성하며 편집부원으로써 활동하고 있는 지금, 늘 그 부분에서 화가 나지만, 어느 정도 그것은 서로가 고쳐가야 할 일이라고 본다.
중학교 3학년 일명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매일매일 기사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신문 편집부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나와 신문에 대한 관계는 깊어졌다. 1년에 한 번, 8면을 기사들로, 사진들로 가득 메워 발행하는 '동아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 곧 중학교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배아이들을 뽑고, 그 아이들과 함께 몇 개월 후, 또 다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하여 오늘 아침도 아이들이 써온 기사점검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 순간순간 만큼은 매우 힘들 시간일 지도 모르지만 몇 년 후, 3부의 신문을 보며 느끼는 감회는 그 누구보다도 깊고 클 것이다.
오늘도 나는 기사를 써야한다. 그리고 아침에 미처 점검하지 못한 기사들도 봐야한다. 기사는 발로 뛰어아한다는 신념으로 그 어떤 좋지 않은 일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역재물의 정신으로 마지막 1년을 편집부원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신문완성에 열심히 해야겠다.
'신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루하루를 추억으로 새기고 있는 오늘, 신문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고등부

광주

신미희 <보문고 3>

“할머니,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자. 지겹지도 않아요?”
아직도 밤이 가시질 않았는지 주변을 땀도는 공기가 푸르스름하다. 할머니는 잘 보이지 않는 침침한 눈으로 주변을 더듬거리며 대야에 나물들을 담는다. 빠르진 않지만 장사를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할머니의 손이 부지런하다. 이불속으로 움추러 진다. 오 월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까지 공기가 차갑다.
“밥은 해냈으니까 먹고있...”
“할머니는?”
할머니는 대답 없이 장지문을 열고 나간다. 방안보다 밝은 바깥이 보이면서, 할머니의 뒷모습이 확연히 보인다. 머리에 이고 있는 대야가 무거운 정도로 할머니의 모습이 작아 보인다.
“그리고 이따가 양동으로 좀 와야 쓰겠다.”
할머니는 매번 이렇게 새벽같이 장을 나간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였으니 벌써 15년이 지났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때에 나는 고작 네살이었으므로 두 분의 얼굴이 기억 나진 않는다. 하지만 아빠가 내 나이쯤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모두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한다.
너는 커갈수록 너희 부모님을 꼭 빼놓는 걸, 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 칸이 먹먹해진다. 서울

로 올라가면 부모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며 살고 싶다. 그러나 할머니는 영 내켜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시장 길에 들어선다. 혹시라도 생선물이 튀길까, 닭털 냄새가 배일까 불안하다. 막 빨아 입은 교복을 울상으로 바라본다.
“미희 가네. 할머니 보러 왔구먼?”
생선가게 아줌마가 나를 보고 이는 채를 한다.
“와, 너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새집때기가 웬 일이고?”
까만 봉지에 뭔가를 가득 담고 있던 숙우가게 아저씨도 내게 인사한다.
“미희야, 이거 네 할머니한테 전해주.”
할머니와 같은 나물 장사를 하는 김할머니도 반가운 기색이다. 얼마 전 빌렸던 거러며 꾸깃한 천원짜리 두 장을 쥐어준다. 할머니 저기 계신다며, 지나가는 길마다 모두들 아는 척을 한다. 숙연해진다.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시장에 찾아왔던 거...
길가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인다. 나물을 다 들고 있는 손이 주름져있다.
“어쩌나, 다들 너 보고싶다 해사는데, 반가워 하드나?”
나는 그냥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서 장사판 벌인지도 이제 십년이 훨씬 넘

었구만. 이젠 떠날 수가 없는 거여. 정이 들어서, 정이.”
지금껏 내게 다가온 말들엔 따스한 정이 들어 있었다. 시장 천막 사이로 햇빛이 들어온다. 할머니의 손을 비춘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와 할머니를 비춰주는 따뜻한 빛. 빛의 고을이라는 광주에는 그 따스함이 가득 차있다. 미소를 짓는다. 오히려 쓰러졌던 마음이 따뜻하게 메워온다.

단체 최고상

- ▲한국청정무용 군무 (화순만연초)
- ▲현대무용 군무 (대성여자중)
- ▲한국전통무용 군무 (대성여자고)
- ▲현대무용 군무 (광주예술고)
- ▲발레 군무 (유안초)
- ▲국악 타악 (광영초)
- ▲관악 합주 (광양제철초)
- ▲관악 합주 (광주동성여자중)
- ▲관현악 합주 (광주송원초)
- ▲국악관현악 합주 (광양제철남초)
- ▲합창 (효광초)

지도교사상

- ◆음악
강민석 (전남예술고)
강수진 (미산초)
권혜숙 (장성여자중)
김송애 (불로초)
김옥희 (광주예술고)
김희정 (효광초)
박재홍 (광평나산고)
송진홍 (광주송원초)
신정자 (문산초)
이선안 (광주송원초)
이영수 (살레시오초)
장준수 (광주동성여자중)
최영환 (동신여자중)
팽기원 (광양제철초)
한수경 (금당중)
황욱주 (문산중)
- ◆무용
김기숙 (대성여자중)
김영순 (유안초)
나인숙 (광주중앙여자고)
박남희 (대성여자고)
성지영 (광주동명중)
이근영 (나주초)
임경미 (화순초)
장유경 (화순만연초)
- ◆국악
윤연성 (광주송원초)
윤은자 (담양여자중)
최명찬 (광영초)
최창준 (광양제철남초)
- ◆미술
김시은 (일곡초)
박영덕 (전남여자고)
전 옥 (신암초)
정경희 (수피아여자고)
정현심 (광주효덕초)
- ◆작문
윤미림 (풍암초)
최기영 (동아여자중)

종합상

- ◆종합최고상
광주송원초 금당중
광주예술고
- ◆종합우수상
살레시오초 대성여자중
동아여자중 수피아여자고